東大新聞

發行人 鄭在覺
編輯人 崔世英
印刷人 方又榮
主幹 洪起三
編輯局長 金容斗
編輯部長 林翼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學生總會 성황 이뤄

——2日 佛像앞 잔디밭에서

非民主的요소 제거해야
總選 오는 22일 실시

學生總會가 지난 2일, 불광산 잔디밭에서 1천여명의 東國人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의원회가 열렸으나 학생들의 참여부족으로 가장 커다란 행사인 총선거마저 제대로 잡지못하면 실망이었다가 총학생회 부활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한편 대의원회에서는 총선일정을 오는 22일로 정했다。

학생총회는 대의원회의장 완제(경기섬·정외4)을 비롯 시안 설명이 있었는데 회의원들과 여임구(사·군)은 『민주적 학생활동의 지한·대의원들과 여임구(사·군)은 『민주적 학생활동의 지학·4)군등 복학생들이 참여, 진리탐구기여, 숙명女人가 애국가 제창 鄭의장의 참여』의 원칙에 입각, 회대의원회 경과보고등의 순서를 기초했다고 말했다。

으로 약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시간」과 「장소」 이날 모든 복학생을 대표해 어임구군이 복학소감을 발표해 있는 와 동시에 후보자들을 발기 시작, 14일 12시까지 이 민주화작업을 위해 진정한 학생 제군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1천여명의 참여부족으로 가장 커다란 행사인 총선거마저 제대로 잡지못하면 실망이었다가 총학생회 부활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한편 대의원회에서는 총선일정을 오는 22일로 정했다。

학생들의 참여가 『매사는 필요성의 문제』라고 말하여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적극성의 문제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식은 만세삼창, 교가제창 등으로 폐회되었다。

한편 총선일정이 확정발표되는데 이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정공고를 하고 14일 12시까지 이 민주화작업을 위해 진정한 학생 제군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1천여명의 참여부족으로 가장 커다란 행사인 총선거마저 제대로 잡지못하면 실망이었다가 총학생회 부활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한편 대의원회에서는 총선일정을 오는 22일로 정했다。

학생들의 참여가 『매사는 필요성의 문제』라고 말하여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적극성의 문제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식은 만세삼창, 교가제창 등으로 폐회되었다。

한편 총선일정이 확정발표되는데 이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정공고를 하고 14일 12시까지 이 민주화작업을 위해 진정한 학생 제군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1천여명의 참여부족으로 가장 커다란 행사인 총선거마저 제대로 잡지못하면 실망이었다가 총학생회 부활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한편 대의원회에서는 총선일정을 오는 22일로 정했다。

거를 실시하게 된다。

선거에따른 후보자유세일정은 동소전보가 15일 제1차합 17, 18일 양일간에는 각각 2·3차 합동유세가 있을예정이다。 또한 교수회로 많을 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학생들은 18일에 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부재자투표를 치르게 된다。

경주대 자율화 진통
점진적 개선책 마련

경주대학(학장=金東三)에서는 지난4월 1일 각과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어 총학생회 부학장의 주최로 구성하는 무기한 시위운동을 단행키로하고 3일부터 교무처 자체의 학생들의 불신을 보다 세심한 배려로 해결하기 위해 교무처 학생처 학생처 등의 관계자와 교수진 학생진상규명과 교수진

「政治中立化」와 警察中立化

時論

「廣域·專門化」따라 獨立要員 公安·人權保護가 본래 職務

政治道具化 방지로 信賴 회복돼야

李璜雨

〈법정대교수·공법학〉

최근 개헌論議와 관련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수사권독립을 위한제도적 장치가 이번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의 커다란 쟁점으로 등장 그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I、警察中立化定向

정부수립과 더불어 장엄한 출범한 우리나라경찰은 그동안 정국의 변화에 관계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무릅쓰고 치안유지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하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家나 國民으로부터 신뢰받고 애정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화와 중립화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諸般指摘을 위해서 각종의 制度裝置가 社會的·文化的 특성에 맞추어 마련되어야 하는 법제적 견제와 조직체계를 갖추어 派然的 政治風土에 벗어나 유효하다고 판명된 정책을 지속화시켜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다. 본래 行政組織 역사적전통 治安思想 경찰사체의 발전에 따라 그나라의 실정에 맞는 組織體制를 가져야한다.

그러나 民主化를 위해서는 內務部 警察이 필요하며, 中立化를 위해서는 獨立된 國家警察과 自治體警察의 兩制度를 併設하고 國家公安委員會와 地方公安委員會의 設置가 필요함을 認識하라는 헌성정은 어려운 條件과 財政上의 問題도 있으므로 國家警察에 重點을 두는 制度를 채택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公正한 人事와 中立化를 위하여는 公安委員會의 管理下에 警察廳을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民主化의 幅이 넓어지고 政治가 活性化될 展望이기 때문에 警察을 비롯한 官僚의 政治的 中立性은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비록 警察이 中立化하여 강력한 組織力과 고도의 權能을 발휘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執權층이 경찰에 대하여 간섭하고 요시한다면 정치적 뒷받침과 能率化는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독자그대로 獨立性과 中立性을 확립하려면 경찰權가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支持와 信賴가 前提條件인 것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기구독립에 대한 논의는 그의 正當性과 경찰임무의 방대함이나 현재와 같은 中央統制式 경찰운영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같다.

II、警察搜査權 獨立의 當爲性

警察의 政治的 中立保障과 관련하여 區廳給付로서 경찰의 지위향상이나 재정적인 면에 충분한 처방책을 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경찰의 무능을 비난하는 예까지 있었다. 과거 警察公務員이 命令, 强制의 경찰권을 남용하고, 지나간 政治體制 밑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해온 점이 없지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國立警察의 잘못 錯覺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治安은 30여년간 國立警察에 의해 유지돼 왔고 또한 우리 역사와더불어 계속 그들에 의해 유지돼 잘것이며 그들의 業務는 모두 우리 國民의 생활이나 權利와 밀접한 관계에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60년대부터 시작된 産業의 발달에 따른 고도경제성장은 국민생활에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 왔으나 국민의 意識構造와 生活環境에도 적지 않은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문제점을 수반한 치안수요는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공안과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경찰이 당면하고 있는 취약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是正하여 적극적으로 對應할 능력과 警察體制를 갖추어 급변할 것이 예상되는 80년대 사회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해야 할 것이다.

警察制度의 이상적인 목표는 그機能의 包括性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클에 비추어 강력한 組織과 고도의 기능력및 科學的 技術性을 발휘할수 있는 組織體系를 가져야 할 것이며, 政警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情實人事로 집권당의 私兵化에 빠지지 않는 眞正中立性이 보장되어야 하며, 民主警察로서 봉사의 정신이 철저히 구현되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등시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民主化와 能率化, 그리고 政治的 중립화가 制度的으로 확립되고 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 현행 警察制度는 5만에 달하는 방대한 制服組織이나 體制가 政權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부정선거 자행하여 기구독립에 대한 논의의 일부인 치안확보의 기능이 약화되고 절대적인 奉仕對象인 國民으로부터 이해와 협력도 얻지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內務部長官의 補助機關으로서 장관이 바뀔때마다 장관의 방침에 따라 경찰의 운영이 좌우되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경찰공무원의 昇進, 轉補등 인사운영이 公正性을 잃기도 하였다.

국민의 生命·身體·財産의 보호, 법

금번의 自由는 民主主義의 생명이다. 이는 人間本來의 기본권이며 人間이 인간임을 알리는 최대의 보루이다. 그러나 5·16이후 정치권력에 의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특히 변질된 긴급조치로 言論은 한없이 무기력해졌다. 이와같은 정치권력에 의한 한독적인 언론부재현상과 사회조직으로서 大學에 부과되는 종 부작용이 많았다. 이제 새로운 법질서가 싹트고 있고 사회각층의 자유화운동과 學園民主化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로 大學新聞本來의 使命을 되찾아야 한다.

오늘날 새로운 轉換期에 處한 한국의 大學新聞은 일었던 권위와 방향을 되찾고 苦難에 의한 모순된 상황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한다. 이에 새로운 時代에 발맞추어 새로운 국학을 위한 救國의 사명감을 굳게 가지고 大學言論의 中興과 民主主義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大學新聞은 더욱이 거듭이며 더딱 양심의 불이 되어야 한다. 不義와타협하지 않고 局外者로서 방관하지않으며 하나의 主體勢力으로서 그 일원이 되어야 한다. 大學新聞 無用論 무불 다해야 한다. 大學新聞 신분이 올바른 방향감각과 용기를갖지 못한채어설픈 정의의 느낌만 혜택적인 참여로 大學新聞本來의 使命을 되찾아야 한다.

「서울지구 大學新聞記者협회」

大學閑話

대망

요학생

〈佛敎大미술과〉

新學期도 벌써 일개월이 지났다. 겨울의 70년대를 보내고 무엇인가 희망에 새로운 80년대를 歡迎하며 敬虔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였기에. 2次 世界大戰의 난관을 겪고난후 美術學藝는 각각 독자적인 新人生을 開拓하여 學生들과 學問을 즐기는 것이었다. 戰爭속에 破壞된 文化文明은 점차 우리의 주변에서 新世代들이 새로운 願望을 품고 素材, 技法의 開拓로 創作分圍氣가 제법움직일때 佛敎大學에 美術學科가 創設되어 傳統밖에서부터 西歐의 物質文明속에 사는 學徒들이 모험 또는 實驗 學藝生活을 하는데못지않게 우리도 展開하여온 것이다. 석고상몇개, 畵作品 몇점이 겨우 이것뿐이었고 3%에 불과하여 檢査의 準備하며 실질적으로 委任되고 있는 것이다. 檢査의 경찰에 있어서 犯罪搜査는 95%이상이 司法警察官吏에 의존하고 있으며 檢査가 직접 또는 指揮한 사건은 0·3%에 불과하여 檢査의 搜査力量은 未備하며 실질적으로 委任되고 있는 것이다. 檢査의 지휘없이 범죄수사가 착수된다는 것은 公訴維持에 관한 檢査의 확신이 없는 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內包하는 것으로서 端的으로 표현한다면 國民의 警察不信風潮을 助長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檢察의 공직적으로 警察의 資質低下, 전문지식의 결여, 搜査倫理의 不在로 인한 人權侵害등의 事例를 들어 無能을 비난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檢察이 제1차 搜査를 행하게 되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檢察의 人事權 司法警察官吏에 의존하고 있으며 內務部 警察官吏는 그 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刑事訴訟法 第195條에 檢事가 犯罪搜査의 主體임을 明示하고, 同法 第196條에는 檢事의 司法警察官吏에 대한 搜査指揮權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檢察廳法에서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同法 第5條에 檢事의 司法警察官吏에 대한 그 指揮監督權을 부여하고, 同法第35條에는 檢事와 司法警察官吏가 上命下服의 關係에 있음을 明示하고 이 命令權을 실질적으로 保障하기위하여 同法 第36條에 司法警察官吏에 대한 懲任權까지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現行法秩序上 犯罪搜査의 實任은 檢事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治安警察이 警察(內務部) 과 檢察(法務部)로 분리되는것도 문제가있고 전자가 후자에 예속되는 특한 인상이나 二重으로 복종해야 하는 문제, 그 밖에 지적할 점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檢察이 제1차 搜査를 행하게 되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檢察의 人事權 司法警察官吏에 의존하고 있으며 檢察의 專門性이 고려되지않고 있으며 검찰의 중립성을 논함에 있어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는데 있어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는점에 대해서는 경찰중에서도 警察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경찰의 중립성을 논함에 있어 경찰의 중립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주장을 낳기도한다.

搜査指揮에 있어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는점에 대해서는 경찰중에서도 경찰관과 법률지식이 높은 檢察官이나 소극적인 경찰상의 문제해결만 염려에 현실감각이나 時代潮流를 외면한채 경찰의 자질향상만을 주장함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1、外國의 立法例

犯罪搜査에 있어서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와의 관계에대해서는 立法例가 구구하나 현재 세계의 대다수 國家에서는 警察에 독자적인 搜査權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다만 제2차世界大戰前의 독일과 프랑스 등 大陸法系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다가 終戰後 그나름대로 특이한 형태로 警察官吏中 일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情實人事로 집권당의 私兵化에 빠지지 않는 眞正中立性이 보장되어야 하며, 民主警察로서 봉사의 정신이 철저히 구현되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등

英國에서는 警察制度가 정비되고 國家警察과 自治體警察이 併立하여 있다. 오늘날 법치國의 대부분이 警察訴追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실질상의 職權訴追이지만 형식상은 私人訴追와 등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組織體系를 가져야 할 것이며, 政警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情實人事로 집권당의 私兵化에 빠지지 않는 眞正中立性이 보장되어야 하며, 英國의 警察制度는 1829年 警視廳法이래 獨立된 國家警察로서 봉사의 정신이 철저히 구현되어 있으며 終戰後에 英·美와 같은 體制로 改革을 단행하였다.

英國에서는 檢察官吏와 司法警察官吏의 關係가 구체적인 犯罪搜査에 있어서는 檢察官吏에게 指揮權을 인정하고 있으며 警察官吏에게 搜査權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英·美에서는 전통적으로 警察에 독자적인 搜査權을 인정하여 왔으며 檢察官吏에게 指揮權을 인정하는 것은 없다.

2、現行 法秩序의 構造와 乖離

우리나라 現行刑事法體制下에서는 범죄수사의 주도權은 法務部소속의 檢察廳檢事에 있으며 內務部소속의 司法警察官吏는 그 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刑事訴訟法 第195條에 檢事가 犯罪搜査의 主體임을 明示하고, 同法 第196條에는 檢事의 司法警察官吏에 대한 搜査指揮權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檢察廳法에서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同法 第5條에 檢事의 司法警察官吏에 대한 그 指揮監督權을 부여하고, 同法第35條에는 檢事와 司法警察官吏가 上命下服의 關係에 있음을 明示하고 이 命令權을 실질적으로 保障하기위하여 同法 第36條에 司法警察官吏에 대한 懲任權까지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現行法秩序上 犯罪搜査의 實任은 檢事에게 있는 것이다.

犯罪搜査의 主導權은 檢事에게 있고 檢察官吏는 檢事의 指揮·命令에 따라 犯罪搜査의 主導權·指揮監督權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公正性과 人權옹호를 기하려는데 그 趣旨가 있다고 하다. 법적수사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에 의한 搜査와 檢事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犯罪에관한 第1次的 수사는 주로 司法警察官吏가 행하게 됨으로 따라서 그것은 추상적이며 법률적인 색채가 농후한데 대하여 檢事에 의한 搜査는 보다 구체적이며 법률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現行法秩序는 高度의 法律知識을요하는 事件以外의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檢事가 일일이 수사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前提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이 司法警察官吏에 있어서 犯罪搜査는 95%이상 司法警察官吏에 의존하고 있으며 檢察官吏는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 특히 法務部의 중립은 전적으로 政治的 중립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檢察官吏는 警察의 중립성을 논함에 있어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낳기도한다.

그러나 그것이 國立警察의 잘못 錯覺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治安은 30여년간 國立警察에 의해 유지돼 왔고 또한 우리 역사와더불어 계속 그들에 의해 유지돼 잘것이며 그들의 業務는 모두 우리 國民의 생활이나 權利와 밀접한 관계에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聯邦檢察廳長官에 지방검찰관 임명하여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終戰後 英·美法系의 憲政을 채택하고 刑事訴法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경찰의 정치적중립을 보장하는 조직로 公安委員會制度를 설치하면서 경찰에 독자적인권수사권을 부여하였다. 이로인하여 범죄수사에 있어 檢察官吏의 경찰에 대한 指揮·命令은 제2차적 보충적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檢察은 犯罪搜査를 일체 경찰에 맡기고 公訴官으로서의 임무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고도의 法律知識을 요하거나 정치선을 갖는 사

3、治安能力의 効率化問題

犯罪搜査에 있어서는 組織的이고도 방대한 人的·物的施設을 필요로 하는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科學機械文明 및 각종 交通手段의 급속한 발달과 이에 따르지 못하는 精神文化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反倫理, 反社會的인 각종 頹廢風潮등 複合要因으로 범죄율이 增加하고 質的으로 그手法이 날로 發惡 犯罪化하고 集團犯罪化하여 全國을 하나의 犯罪圈으로 하여 機動·廣域化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搜査一線을 담당하는 警察의 搜査能率의 向上이 강력히 요구된다.

따라서 400여명의 檢察官 年間 50萬件이 넘는 犯罪事件을 일일히 직접 搜査나 指揮監督한다는 것은 도저히 期待할 수 없다. 또한 現實에 있어서도 犯罪搜査의 95%이상을 司法警察官吏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英·美와 日本에서와 같이 범죄수사권을 사법경찰관리에게도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의 수사주도권 또는 指揮監督權을 폐지하려다도 日本에서와 같은 檢察官廳의 搜査活動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公訴의 提起 維持라는 막중한 業務量을 담당하는 檢事에게도 큰도움이 될 것이다.

전통적이며 靜謐的인 법률지식이나 소극적인 경찰상의 문제해결만 염려에 현실감각이나 時代潮流를 외면한채 경찰의 자질향상만을 주장함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사설

總選에 즈음하여

學生自治기구였던 總學生會가 폐지된이후 5년만에 실시될 總學生會 總選이 今月22일로 확정되었다. 그동안에 학생자치기구의 誕生을 위해 이미 많은 努力들이 展開되어 그결실의 단계에 있다고 보아 우리는 이를 환영하면서 또한 앞으로의 선거과정을 관심있게 注視하는 바이다. 지난날의 경험에비추어 보아 선거의 肯定的인 면보다 否定的인 측면이 먼저 떠오르는것을 피할수 없는게 그간의 사정이었다.

크게는 3·15不正選擧로 인해 불내는 自由黨政權이 崩壞하는 政權的 次元에서의 歷史도 맛보았으며, 각종 선거에서 막걸리 선거나 하는 타락현상을 너무도 흔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選擧란 바로 그런것」이라고 할만큼 選擧의 타락상은 대학에도 큰 예의없이 적용되어 學徒護國團利敵에 하나의 口實을 제공하는 결과마저 낳았다고볼 수 있다. 이로 인해 旣成政治人을 非難할 수 있는 파수꾼의 資格도 喪失한지 이래였으며 特히 社會의 模範이 되어야할 지성의 최고전당으로서의 자부도 사라진지 이래였었다.

그러나 이제 밖으로는 政治發展과 안으로는 學園民主化라는 도도한 흐름의 創造를 위해 그간의 모든 醜惡, 惡習을 씻어버리고 참된 民主主義가 土着化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選擧風土를 우리의 손으로 다듬지 않으면 아니 될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무릇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가지手段方法을 모두 동원하여 임해 왔었다. 이들 방법중에서는 社會主義의 하나인 機會의 균등이 현저하게 깨뜨려지는 非合法的이요 不正的인 수단의 動員도 허다했었다.

相對政黨의 情報를 얻기 위해서 일어났던 美國의 워터게이트事件도 바로 이러한 법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不法과 不正을 제공하는 선거의 꽁무니를 잡기 위해서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正正堂堂함을 초월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反則을 범하지 않고 싸우는 것을 뜻한다. 보통 이와같은 「페어·플레이」의 정신이 선거에 고대로 적용된다고 하여진다. 이러한 精神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못에 부득이 취해질 수 있는 조처가 있다면 그것은 선거의 공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보자가 공정을 잃게되거나 선거가 과열될 때 이를 막는 하나의 중립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다. 본래 行政組織 역사적전통 治安思想 경찰사체의 발전에 따라 그나라의 실정에 맞는 組織體制를 가져야한다.

그러나 民主化를 위해서는 內務部 警察이 필요하며, 中立化를 위해서는 獨立된 國家警察과 自治體警察의 兩制度를 併設하고 國家公安委員會와 地方公安委員會의 設置가 필요함을 認識하라는 헌성정은 어려운 條件과 財政上의 問題도 있으므로 國家警察에 重點을 두는 制度를 채택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公正한 人事와 中立化를 위하여는 公安委員會의 管理下에 警察廳을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民主化의 幅이 넓어지고 政治가 活性化될 展望이기 때문에 警察을 비롯한 官僚의 政治的 中立性은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비록 警察이 中立化하여 강력한 組織力과 고도의 權能을 발휘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執權층이 경찰에 대하여 간섭하고 요시한다면 정치적 뒷받침과 能率化는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독자그대로 獨立性과 中立性을 확립하려면 경찰權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支持와 信賴가 前提條件인 것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기구독립에 대한 논의는 그의 正當性과 경찰임무의 방대함이나 현재와 같은 中央統制式 경찰운영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家나 國民으로부터 신뢰받고 애정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화와 중립화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諸般指摘을 위해서 각종의 制度裝置가 社會的·文化的 특성에 맞추어 마련되어야 하는 법제적 견제와 조직체계를 갖추어 派然的 政治風土에 벗어나 유효하다고 판명된 정책을 지속화시켜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다. 본래 行政組織 역사적전통 治安思想 경찰사체의 발전에 따라 그나라의 실정에 맞는 組織體制를 가져야한다. 실정에 맞는 組織體制를 가져야 하는 것이

韓国史에 나타난 民衆運動

<3>

①3·1운동과민중의의지
②민중운동으로서의 동학혁명
③朝鮮後期의 農民蜂起
④고려시대의 민중운동
⑤한국사속의 민중운동
⑥현대의 민중운동

朝鮮後期의 農民蜂起

잦은 混亂、農民들 現實直視 기회부여

洪景來亂、19世紀 民衆運動에 큰 영향

엄격한 身分社會에서 農民蜂起、近代化에 기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林 英 正

意識에 있어 19世紀는 農民의 意識이 급격히 成長, 集團的 亂動이라고 하는 수단을통해 支配階層의 수탈에 抵抗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洪景來亂 西北人의 叛亂事件을 筆頭로 크고작은 농민의 항거가 계속되어 壬戌民亂으로 지칭되는 三南地方 農民抵抗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東學 農民蜂起로 확대되는 시기였다. 傳統的인 社會體制下에서의 農民이란 복종을 미덕으로하는 被支配階層이었기와 특히 儒學的인 實踐倫理와 엄격한 身分制社會를 기본으로 한 朝鮮王朝에있어, 農民은 意識을 前提로 할수 없는 階層이었다.

이들이 저항을 개시하고 자신들의 權利를 주창, 단순한 農民 叛亂의 차원을 넘어 農民運動의 성격으로 승화시킴에 따라 朝鮮王朝는 계기적 질서가 붕괴되는 시기를 계기로 個銷化하게 되었고, 民衆은 점차 근대화의 역정을걸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나온것만 농민봉기는 지극히 중요한의미를 부여하며 그중에서도 洪景來등의 봉기는 추후에 야기되는 諸 農民蜂起를 유발하는 촉매제적 기능을 하였던 점에서 가공할 새로게해야 될 것이다.

洪景來의 亂은 平安道 龍岡의 殘班인 洪景來와 洪景來 부재와의 부동을 기회로 국가전복을 기도하고 뜻을 갖이하는 몇몇 동지들과 1811년12월18일을 기해 일으킨 亂이었다.

처음에는 평소 불만을 품은 邑民의 호응에 힘입어 定州城을 無血占據하는등 10여일동안에 嘉山, 博川, 郭山, 定州, 宣川, 寧川, 鐵山등 부려 7개읍을 수중에 넣을 정도로 기세가 완강하였다.

그러나 安州를 중심으로 平安道兵營 기타 各地의 官軍의 敢한 인진이다. 물론, 제속의 자유분방한 基礎에 따르지 않고 價値생활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조차다. 하며 당장은 불편하고 괴롭다면서 定州城을 제외한 각지 위축되어 定州城에서 배우는 것, 단체에서 존재하는 것도 함락되고 주모자인 洪景來등 主謀者 전원이 전사하거나 잡힘으로써 4개월만에 진압되었다.

이상이 洪景來등의 봉기에 대한 疎略한 시발어거나와 이들의 봉기는 性格面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이들의 蜂起는 몇몇 주모에의한 단순한 反國家的 亂이기보다는 農民이 주체가 된 民衆운동이었다는 점이다. 蜂起軍의 구성을 보면 指揮級의 머부분이 地師, 商人 그리고 里正, 約正, 風憲등의 鄕任이거나 千摠, 把摠, 別武士등 武任이었다. 따라서 身分上 知識層, 富裕層, 武士層인 中間階層이었다. 그러나 鄕任은 朝鮮後期에 이르면 富力에의해 叙任되는 수가 많았으며 武任역시 下層 武班에 불과하였다. 또 그밖의 士卒들은 모두 일반農民이었다. 이렇게 불평 · 이들의 蜂起는 民衆遊戲이었다고 하겠다. 그다음 이들의 蜂起目標는 서울로 進軍하자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아 國家를 전복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훗날의 壬皮年 農民蜂起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저들 역시 民衆의 호응을 얻기위해 西北人에 대한 차별대우의 철폐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의도가 的中하여 평소 불만을품은 머중들을 영입할 수 있었다. 여기에 朝廷과 特權商人에게 불만을 가진 中小商人이 합세하였다. 또한 초기 蜂起軍의 下部主力은 貧農이었다. 이렇게 봉기의 배경이 가장 먼저 점수되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立地條件 아래에서 民衆들은 다른 어느地域보다도일찍 자기들의 權利를 主唱할수있었다. 보다 먼저 자기들의 權利를 소지하게 된 것이 蜂起를 일으키게 된 精神的 背景이 되었다.

아울러 이들의 蜂起가 다르지는 역의 農民에게 저항의 起爆劑的 역할을 한 점이다. 1811년부터 1862년까지, 즉 西北人의 봉기로부터 壬戌民亂까지의 약半世紀間에 일어난 여러 형태의 農民抵抗의 爆發가 洪景來등의 蜂起의 영향을 받았것이었다.

濟州島의 士族 梁制等 黨類의 결탁, 민중을 선동 嘯吹, 島內 官廳을 습격하여 全島를 독자적으로 통치하려는 움직임은 결과를 가져왔다.

晉州에서의 農民蜂起는 邑에서부터 약30里 떨어진 水谷場市에 집결한 農民들로부터 시작되었다. 2월18일 아침동이 틀어난 농민의 대열은 그곳 水谷場市를출발 하여 晉州市로 몰려가 撤市를 강행한 다음 여세를 몰아 晉州城으로 향하자 이제까지 잠잠하던 城民들 다들 지역에서 즉각 이에 가담, 隊列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들 대규모의 농민들은 文斗를 앞세우고 鄕校를 습격, 향교에 보관되어 있던 儒生들의 名 부에 대한 처벌대우의 철폐를 요구하는 鄕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이를 불태워 버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農民의 의식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엿볼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農民蜂起의 기본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옷하고 오히려 農民蜂起의 起爆劑的인 역할만 助長한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비조직적이며 소규모의 농민봉기는 各處에서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

1813년 濟州島의 士族 梁制等 黨類의 결탁, 민중을 선동 嘯吹, 島內 官廳을 습격하여 全島를 독자적으로 통치하려는 움직임은 결과를 가져왔다.

晉州에서의 農民蜂起는 邑에서부터 약30里 떨어진 水谷場市에 집결한 農民들로부터 시작되었다. 2월18일 아침동이 틀어난 농민의 대열은 그곳 水谷場市를출발 하여 晉州市로 몰려가 撤市를 강행한 다음 여세를 몰아 晉州城으로 향하자 이제까지 잠잠하던 城民들 다들 지역에서 즉각 이에 가담, 隊列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들 대규모의 농민들은 文斗를 앞세우고 鄕校를 습격, 향교에 보관되어 있던 儒生들의 名 부에 대한 처벌대우의 철폐를 요구하는 鄕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이를 불태워 버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農民의 의식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엿볼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農民蜂起의 기본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옷하고 오히려 農民蜂起의 起爆劑的인 역할만 助長한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비조직적이며 소규모의 농민봉기는 各處에서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

1815年에는 龍巖縣民 李愿吉 등이 마을에 水鐵店을 차려 武器를 만들고 군사를 일으키려 陰謀가, 1817年에는 全羅道 長水人 蔡尋永이 약장사를빙자로 同志를 모은뒤 亂樣船의 주모자들이 살아있다는 등의 낭설을 퍼뜨려 民心의 攪亂을 획책하는 등시에 순창 · 淳昌 · 潭陽 · 光州 · 長城 · 靈光 · 咸平 · 三嶺地方을 무대로 일어나고있으며 또 2월부터 5월사이의 春期期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민중의 요구조건이 한결같이 地方官의 탐학, 가혹한 수탈의 제지등 三政紊亂 시정에있었다. 이는 이들 農民蜂起가 자신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生存運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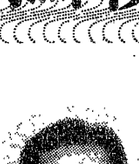
둘째로 이들 農民봉기는 앞에서의 洪景來등의 蜂起의 뒤리주모자의 대부분이 農民이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는 士族의 殘班이 首謀인 지역도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農民側 인장에 있던 者였다. 또 蜂起마다 首唱者가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長期的이고 組織的인 計劃을 사전에 꾸민일이 없었던 이며 또 自然發生的인 것이었다.

세째로 이 農民蜂起에는 극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전혀 배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富豪층을 죽이며 곡가를 파괴하고 불을 놓는등 지였으나 다른 한편 이들은 정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晉州民 蜂起時 鎭牧使를 脅威하면서도 신변에는 털끝만큼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다수농민의 절박한 生存鬪爭이었지 組織된 기도가 배후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例이다.

19世紀의 농민봉기를 縱觀할때 모두가 農民 스스로의 권익옹호를 위한 투쟁이었다. 即 啟敎的인 實踐倫理와 身分制의 사회질서하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흰수건을 두르고 農具와 몽둥이 휘둘러"

1811年에는 龍州府民 수백명이 暴逆問題를 들어 상경만루 伏闕上疏를 하였고 연일 계속하였다. 그리고 1815년에는 三政紊亂의 燒敎였다. 1817년에는 이른바 三政紊亂의 燒敎였다. 暴逆은 地方官吏가 還穀을 分給 收納하는 과정에서 利益을取하는것이며 都結은 私用에 충당한후 錢이나 米布 등을 補充하기위해 結稅를 法定額以上 책정하여 民戶에 부과시키는 착취수단이었다.

정답 樺紫色 白樂華 牧使 洪奭元의 慰謝노 아랑잣집이들을 호위하면 下部와 校吏를 닥치는데로 두들기고 不正行史를 참혹히 박살 焚燒하였다.

이날날 부터는 각 마을에서평班과 부호의 집을 불태우거나 괴하고 재물을 빼앗는등 主動的인 迫害가 가한 후 6日만에야 자진 解散하였다. 그리하여 이 6日동안에 晉州城 및 邑村은 무려 23個面에 달하였고 家屋破壞 126戶, 財物奪取 1

晉州에 일어난 農民運動은 全國的으로 두 번째로 35個地域에 달하였고 또 한 地域에서 2, 3次 거듭되기도하였다. 특히 濟州島에서는 蜂起한 民衆의 數가 數萬名에 달하였고 한때 守令이 逃避하여 全島의行政이 마비 될 정도로 極熾하였다.

그런데 이들 農民蜂起는 晉州의 農民蜂起 이전의 저항에서와 같이 몇개월의 특기할만한 사항이 보인다. 먼저 이들 봉기의 대부분이 忠淸 忠淸 全羅道 三南地方을 무대로 일어나고있으며 또 2월부터 5월사이의 春期期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민중의 요구조건이 한결같이 地方官의 탐학, 가혹한 수탈의 제지등 三政紊亂 시정에있었다. 이는 이들 農民蜂起가 자신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生存運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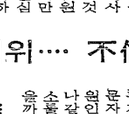
둘째로 이들 農民봉기는 앞에서의 洪景來등의 蜂起의 뒤리주모자의 대부분이 農民이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는 士族의 殘班이 首謀인 지역도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農民側 인장에 있던 者였다. 또 蜂起마다 首唱者가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長期的이고 組織的인 計劃을 사전에 꾸민일이 없었던 이며 또 自然發生的인 것이었다.

세째로 이 農民蜂起에는 극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전혀 배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富豪층을 죽이며 곡가를 파괴하고 불을놓는등 지였으나 다른 한편 이들은 정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晉州民 蜂起時 鎭牧使를 脅威하면서도 신변에는 털끝만큼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다수농민의 절박한 生存鬪爭이었지 組織된 기도가 배후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例이다.

19世紀의 농민봉기를 縱觀할때 모두가 農民 스스로의 권익옹호를 위한 투쟁이었다. 即 啟敎的인 實踐倫理와 身分制의 사회질서하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學點規程완화 필요

安重佑

未熟하나마 自己自身의 思考方式 개척해야

陣痛없이는 참다운 創造的 發展기대 어려워

授業自律化로 참다운 大學기능 발휘 하도록

대학의 현주소는 어딘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대학은 무엇인가? 여기 부족하나마 4년의 대학생활에서 절실히 느낀것을 토해 보려한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율, 즉 자유다. 이러한 자유속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항상 어디로든지 장애 없는 부동 (움직여서 움직임)의 가능성 속에서 존재할 때만이 진정한 대학의 의미를 찾을수 있다. 대학이란 결코 건물이 아니며 강의실도 아니다. 그리고 결코 강의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대학에는 대학만의 생활이 있다.

大學時節이 아니면 만날수 없는것, 大學時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젊음과 大學의 意味를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 강의시간에 또박 또박 출석하고 레포트는 마감보다 일찍 일어나 앞서 提出하고 시험에서는 높은점수를 얻는 것만이 좋다고 할수 없다. A학점이 많은 學生중에는 공부하는 요령이 좋은 학생이상당히 많다. 요령이 좋은 學生은 순간 순간 잘 넘기지만 다만 그 정도밖에 되지않는 人間으로, 살아가는 역전·힘이 없다. 또한 요령과 앎키위주의 공부는 創造力의 결핍을 가져오며 그러한삶의 결과는 無氣力과 無意味한 것이다.

서루르더라도 自己自身만의 考方式을 개척하는 것이 더 강조한 인간이다. 물론, 제속의 자유분방한 價値基準에 따르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조차다. 그러나 지금 모험을 하지않으면 언제 하는가? 대학에서 배우는 것, 단체에서 존재하는 것이것지것 해 보고 자기로서는 이것만은 절대로 자신있고 또 좋아한다고 단언할수있는 세계를 하나구축하는것—자기자신의 주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대학에서 해야할 일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불고 자신이 생기면 골 여기에 朝廷과 特權商人에게 불만을 가진 中小商人이 합세하였다. 또한 초기 蜂起軍의 下部主力은 貧農이었다. 이렇게 봉기의 배경이 가장 먼저 점수되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立地條件 아래에서 民衆들은 다른 어느地域보다도일찍 자기들의 權利를 主唱할수있었다. 보다 먼저 자기들의 權利를 소지하게 된 것이 蜂起를 일으키게 된 精神的 背景이 되었다.

아울러 이들의 蜂起가 다르지는 역의 農民에게 저항의 起爆劑的 역할을 한 점이다. 1811년부터 1862년까지, 즉 西北人의 봉기로부터 壬戌民亂까지의 약半世紀間에 일어난 여러 형태의 農民抵抗의 爆發가 洪景來등의 蜂起의 영향을 받았것이었다.

濟州島의 士族 梁制等 黨類의 결탁, 민중을 선동 嘯吹, 島內 官廳을 습격하여 全島를 독자적으로 통치하려는 움직임은 결과를 가져왔다.

晉州에서의 農民蜂起는 邑에서부터 약30里 떨어진 水谷場市에 집결한 農民들로부터 시작되었다. 2월18일 아침동이 틀어난 농민의 대열은 그곳 水谷場市를출발 하여 晉州市로 몰려가 撤市를 강행한 다음 여세를 몰아 晉州城으로 향하자 이제까지 잠잠하던 城民들 다들 지역에서 즉각 이에 가담, 隊列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들 대규모의 농민들은 文斗를 앞세우고 鄕校를 습격, 향교에 보관되어 있던 儒生들의 名 부에 대한 처벌대우의 철폐를 요구하는 鄕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이를 불태워 버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農民의 의식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엿볼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農民蜂起의 기본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옷하고 오히려 農民蜂起의 起爆劑的인 역할만 助長한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비조직적이며 소규모의 농민봉기는 各處에서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

1813년 濟州島의 士族 梁制等 黨類의 결탁, 민중을 선동 嘯吹, 島內 官廳을 습격하여 全島를 독자적으로 통치하려는 움직임은 결과를 가져왔다.

晉州에서의 農民蜂起는 邑에서부터 약30里 떨어진 水谷場市에 집결한 農民들로부터 시작되었다. 2월18일 아침동이 틀어난 농민의 대열은 그곳 水谷場市를출발 하여 晉州市로 몰려가 撤市를 강행한 다음 여세를 몰아 晉州城으로 향하자 이제까지 잠잠하던 城民들 다들 지역에서 즉각 이에 가담, 隊列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들 대규모의 농민들은 文斗를 앞세우고 鄕校를 습격, 향교에 보관되어 있던 儒生들의 名 부에 대한 처벌대우의 철폐를 요구하는 鄕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이를 불태워 버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農民의 의식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엿볼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農民蜂起의 기본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옷하고 오히려 農民蜂起의 起爆劑的인 역할만 助長한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비조직적이며 소규모의 농민봉기는 各處에서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

1815年에는 龍巖縣民 李愿吉 등이 마을에 水鐵店을 차려 武器를 만들고 군사를 일으키려 陰謀가, 1817年에는 全羅道 長水人 蔡尋永이 약장사를빙자로 同志를 모은뒤 亂樣船의 주모자들이 살아있다는 등의 낭설을 퍼뜨려 民心의 攪亂을 획책하는 등시에 순창 · 淳昌 · 潭陽 · 光州 · 長城 · 靈光 · 咸平 · 三嶺地方을 무대로 일어나고있으며 또 2월부터 5월사이의 春期期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민중의 요구조건이 한결같이 地方官의 탐학, 가혹한 수탈의 제지등 三政紊亂 시정에있었다. 이는 이들 農民蜂起가 자신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生存運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이들 農民봉기는 앞에서의 洪景來등의 蜂起의 뒤리주모자의 대부분이 農民이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는 士族의 殘班이 首謀인 지역도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農民側 인장에 있던 者였다. 또 蜂起마다 首唱者가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長期的이고 組織的인 計劃을 사전에 꾸민일이 없었던 이며 또 自然發生的인 것이었다.

세째로 이 農民蜂起에는 극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전혀 배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富豪층을 죽이며 곡가를 파괴하고 불을놓는등 지였으나 다른 한편 이들은 정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晉州民 蜂起時 鎭牧使를 脅威하면서도 신변에는 털끝만큼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다수농민의 절박한 生存鬪爭이었지 組織된 기도가 배후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例이다.

19世紀의 농민봉기를 縱觀할때 모두가 農民 스스로의 권익옹호를 위한 투쟁이었다. 即 啟敎的인 實踐倫理와 身分制의 사회질서하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모범적(?)시위…… 不信의 정화제로

○…간간 지방에서 열렸던 대학야구 춘계 연맹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본교야구팀이 이번 동국사범권한인 서울운동장으로 그 장소를 옮겨 시합을 벌였는데 이게 웬일인지 이미 쟁쟁한 몇 대학을 이긴 개선장군들(?)을 환영하는바 본교 일부 극성팬들은 수업도 빠지고 운동장으로 달려가도록 응원단 학생대표인 한 소요사태라는 한 학생대표 이색 타협전(?)이 전개되기도, 내용인즉 타협전서 실패할 경우 수업보이콧 마저 불사하겠다는것 "불제운원도 좋지만 수업을 일절 이탈아야하지 않을까?"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경주대학의 학원민주화 운동이 학원 소요사태로 번져 교육을 당분간 중단케 하였지만 학생들은 그동안 체중화 되었던 불만을 속시원히 털어놓은셈이 되었다고.

학생들의 절박정연한 시위운동은 학교 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 바람직한 방향 모범적(?)인 운동이라는게 일반인들의평.

각 지방대학들은 저마다 축제를 열고 운동경기 학생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바르지못한 자세(?)도 보여 부조화 속에 조화롭지 못한 부조화 학수업는 불만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는게 학생들의 하나같은 얘기고 보면 학생들의 소홀 이제는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

문화재 愛好精神(?)이 지나쳐

○…본대 전통탑 주변의 손바닥만한 잔디밭 높는 철책을 둘러 넓어가 담배꽁초 피우는가하면 심지어는 석탑을 꺼안는등의 지나친 文化財 愛好精神(?)이 눈에 띄어 지나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물론 불교를 전혀 이념으로 하는 東國人의 석탑에 대한 남다른 애모와 은근히 배여있는 先人들의 體臭를 맡아보려는 그들의 意中을 짐작이 가나 불상앞의 넓은 잔디밭을 누두고 구태여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 학문에 대한 知性 또는 制度上 의 믿음 ·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학이라면 · 知性인 · 高 自律! 그것은 대학이라면 · 제도 · 결책은 모든 문화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점유연제 · 대폭적인 완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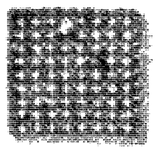
〈서울대 大 社會科〉

이제는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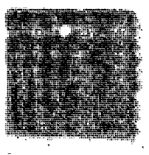
공적인 자리에 입고 가기 위한 정장이나 사무복과는 달리 사적인 자리에 편하게 입는 옷이 자유복입니다. 자유복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사복의 형태를 갖춘 것만 다루기로 하겠읍니다. 자유복은 프라이비트 웨어(Private wear)를 우리말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이 옷은 그 이름이 말해 주듯이 개인의 기호를 마음껏 살릴 수 있는 자유롭고 편안한 옷입니다.

이 옷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첫째로 보통의 신사복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옷을 지은 천과 무늬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무복을 말씀드릴 때에도 이 종류가 다루어졌듯이 이 옷은 흔히 사무복과 혼동이 되기도 하는 옷입니다. 사적인 모임이나 방문을 할 때에 주로 이 옷을 입게 되는데 사사로운 자리지만 다소의 예의를 의식해야 할 경우, 즉 윗사람이나 스승, 선배를 만나거나 찾아볼 때에 입으면 좋습니다. 천의 질감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대개 방모지이기 쉽지만, 무늬가 눈에 띄는 경우에는 소모지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흔히 콤비라고 부르는 옷입니다. 이 옷은 저고리와 바지가 전혀 다른 천, 또는 다른 무늬로 된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의 정확한 이름은 코오디네이트슈트(Coordinate Suit)이며 상하의 조화를 생명으로 합니다. 요즈음 들어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읍니다. 특히 이 옷은 사무복처럼 입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외부와의 접촉이 잦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 옷은 전혀 다른 사람과의 예의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개인적인 외출, 놀이갈 때, 또는 스포츠 웨어로서 잘 선택해서 입으면 좋습니다. 특히 방모지나 특수 원단, 코듀로이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요즈음에는 이 옷을 자기 개성을 살리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읍니다. 세째로 옷의 모양이 신사복을 기준으로 하였으되 극단적으로 변형되었거나, 대담한 디자인을 도입한 것을 들 수 있읍니다. 옷 모양이 극단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활동복으로서의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리 큰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니폼과는 구별이 됩니다. 대담한 디자인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주머니와 그 뚜껑의 모양, 라펠 뒷타개와 허리, 등판, 앞판에 보통의 신사복에서는 감춰지는 선을 일부러 나타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재단을 보통의신사복과는 전혀 다르게 함으로써 새로운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종류에 쓰이는 천은 소모, 방모, 특수지는 물론이고 실크, 포리에스터 계통이나 면 종류도 많이 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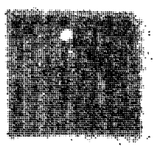
자유복은 그 빛깔과 무늬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대담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선뜻 입기를 꺼리는 분이 많은듯 싶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입어온 신사복의 색깔이 대체로 검정색, 회색, 곤색, 짙은 밤색 계통의 차분하고 무난한 것이었던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어온 지난 시대에는 옷에다 크게 신경을 쓸 만큼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양복을 선택하는 기준이 사무복의 기준에 얽매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싫든 좋든 국제화 시대에 살게 된 우리로서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개인적인 볼 일은 물론이고 사업 목적을 위해서도 사적·공적인만남을 자주 갖게 되었읍니다. 이런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대담한 디자인, 눈에 띄는 무늬의 옷을 유효 적절하게 입을 줄 아는 지혜는 그만큼 우리의 상대적인 위치를 높여 줄 것입니다. 또 이 자유복은 자기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옷이므로, 생활의 여유와 멋을 찾아도 좋을 만큼 우리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있는 요즈음에는 생각해 볼직한 옷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착 가라앉은 듯한 디자인이나 색조의 옷만 입어온 탓에 조금은 답답해 보이거나, 무기력하게까지 느껴진 우리의 생활 양식에 좀 생기있고 활달한 느낌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소모지



방모지



코듀로이

●다음 차례에는 탈타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전해 드리겠읍니다.

신사복은 이렇게 입어야 합니다④

캠브리지의 진가는 입고 활동하는 동안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CAMBRIDGE 캐미브리지

웃음 바르게 입는 데 도움을 주는 글
본디 서양 사람들의 옷인 양복을 한국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적응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신사복 "캠브리지"를 만들고 있는 제일 삼풍양복주식회사 학술부에서 국제 양모 사무국의 자료 협조를 받아 신사복의 모든 정보를 분석 정리하여 1979년에 이어 1980년 한 해 동안에 걸쳐 전국의 각 대학 신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읍니다.

삼풍양복주식회사●본사/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27 전화792-5116, 794-4900●본점/한강맨션 한강쇼핑센터2층 794-2892●롯데 매장/롯데쇼핑센터2층771-25(3214)●롯데 아케이드 매장/롯데 1번가 107호 779-0786●신세계 매장/신세계 백화점3층 778-2729 ●미도파 매장/미도파 백화점3층 22-4637 [이지오더 코너] ●롯데/롯데 쇼핑 센터2층 779-0723, 771-25(3214) ●종로 매장/종로1가 서울농협 건너편 73-1829●소공 매장/소공동 소공장 건너편 28-5866●신촌 매장/신촌 로타리 외환은행 옆 33-3979●영등포 매장/영등포 시장 영보극장 건너편 62-4143●인산내매장/풍광동 미도파 슈퍼 2층 388-2927●인천 매장/인천시 내동 72-6233●수원 매장/수원 삼원 백화점1층, 5-7111●대구 매장/대구 남일동 아카데미극장 건너편 23-4659●동아매장/대구 동아백화점 45-9521~30●부산 매장/부산 광복동 로얄호텔옆 22-5967 ●신세계/신세계 백화점 3층 778-2729

御用時代의 지식인

홍 성 용

時論

사랑, 관용으로 民主化이뤄야

自重 자숙으로 學園淨化의 길 모색

知性의힘… 轉換期 내부 분열방지

어제의 조국근대화의神話가 오늘은 조국의 민주화로 Inflation을 전제한 고도의 경제성장이 脫Inflation을 열망하는 안정으로, 그리고 획일화가 다양화로 국론분열방지의 총화만능이 여론의 합박꽃으로·창의로 많은 신화와 가치체계가 근저로부터 변화하고 있다. 뿌리까지 뽑혀버린것 같던 체제, 信念, 正義, 民主, 지금은 그부 많이쏘여 일반화된 만어들이二次大戰 終戰으로 주어졌던 解放처럼 그렇게 주어진 民主化의 동산에서 연약하게나마 싹을 돋우는 때이기도 한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純白은 못되지만 어쨌든 착색된채로나마 모든이들의 가슴 속에 변화를 추진하는 근저는 형성하는 양심의 表象이며,나라와 겨레를 아끼는 知性이 正義를 구현하려는 마음의 결정체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가, 이 들끓는 움직임이, 이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一章이 사랑의 단비로 촉촉히 젖었었던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항시 큰 변동은 변동전 살풍의 反動性을 行動化하여 말그대로 과도의 의미를 띠채 反動으로 靜化된 어떤 제도나 체제나 정치상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시점에서 사랑의 장막, 관용의 가랑비가, 위기를 극복했다기 보다는 모면한 사람들에게는, 미움보다 이루기 어려운 높은 경지인 것이며, 차라리 독력의 숙청이 當爲 일을 잘과하고, 변동전에 당했던 「다른 생각」에대시 이런한 속박의 날이 온다면, 다시 또 양심이 行動化하지 못하는 부고려운 생활을 살 것 같기도 한것이다. 들어켜 보것도 없이 우리의 政治史는 압제자와 피압제자의 피나는 투쟁사였으며 이 불행이 언제라야 끝나는 조국의 민西欧가 지불한 民主主義